

X. 스웨덴의 공적원조(ODA)

1. 투자 목표

스웨덴 공적 개발 원조의 전반적인 목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원조는 크게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와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로 나누어진다.

1) 양자간 원조

스웨덴의 원조는 상당 부분이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양자간 원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원은 스웨덴 정부의 개발 협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스웨덴의 양자간 원조는 주로 국제개발협력청(SIDA)을 통해 구성된다. SIDA는 다국간 무역기구들을 통해 양자간 지원을 관리한다. 이는 다중 양자간 지원(multi-bilateral support)이라고 하지만, 양자간 원조의 데이터에 포함된다. 다중 양자간 지원은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프로그램과 환경 분야와 같은 글로벌 레벨도 포함한다.

2) 다자간 원조

다자간 개발 협력은 공통된 목표를 위해 더 많은 기증자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개발과 빈곤 감소에 보다 더 크고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지원은 구성원들의 필수 공헌과 자발적인 기여로 구성되어 있다. 다자간 원조의 기본 예산 지원은 외교부와 정부의 다른 부처 기관들이 처리한다(Open Aid, <http://www.openaid.se/en>).

2. 투자 정책과 분야

스웨덴의 공적 개발 원조 정책은 다음과 같은 13개의 주요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Open Aid, <http://www.openaid.se/en>).

[그림 X-1] 스웨덴 ODA의 분야 및 비율



출처: Open Aid(2013)

- 1) 농업 및 임업
- 2) 분쟁, 평화 및 보안
- 3) 민주주의, 인권과 남녀평등
- 4) 교육
- 5) 환경
- 6) 빈곤 감소를 위한 일반 예산 지원
- 7) 보건
- 8) 인도적 지원
- 9) 시장 개발
- 10) 기타
- 11) 연구
- 12) 지속 가능한 인프라 및 서비스
- 13) 상세불명

이 중에서 스웨덴의 정책은 글로벌 개발을 위해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1) 민주주의와 인권 2) 양성 평등과 여성의 역할 개발 3) 기후와 환경
스웨덴 정부는 이 세 가지의 주요 가치와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개의 영역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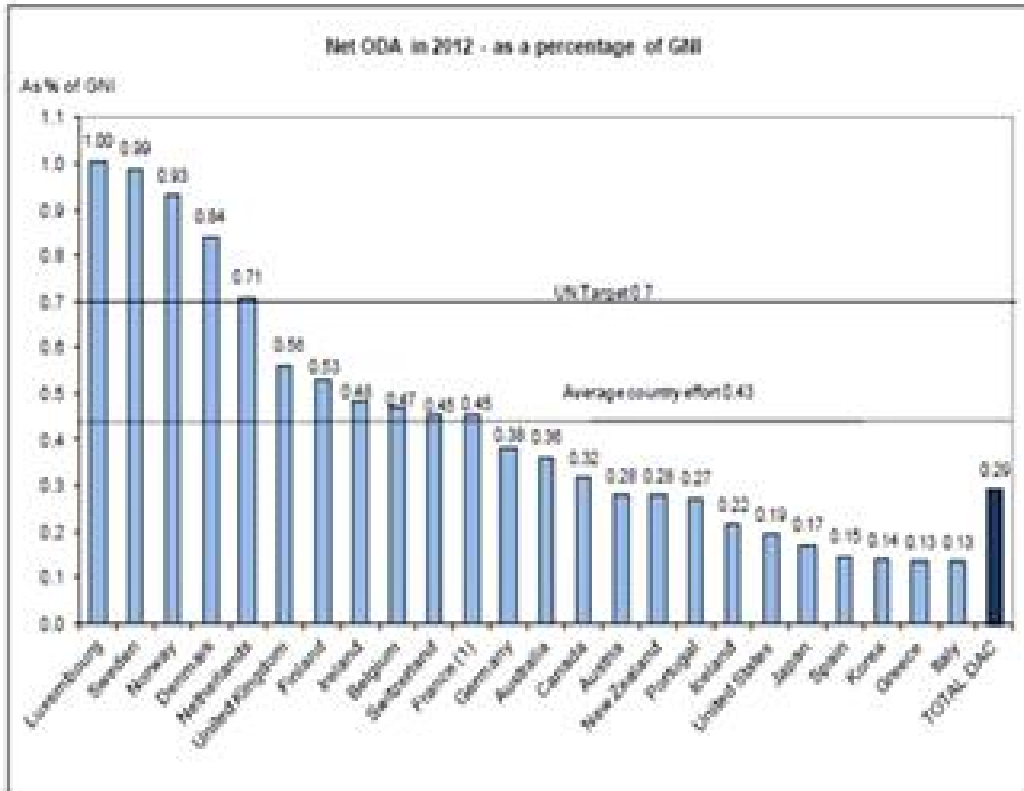
- ①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환경 문제 (농업 포함)
- ② 경제 성장
- ③ 사회 발전과 보안 (세계 보건 포함)
- ④ 갈등 관리
- ⑤ 글로벌 공공재

2013년에는 외교부의 정책보고서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시장개발 부분을 강화시키고, 스웨덴 개발 협력의 효과성과 혁신 및 결과에 기반을 둔 자금 조달을 강조한다(Donor Tracker, <http://donortracker.org/donor-profiles/sweden>).

3. 투자 예산과 지출 금액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은 2012년에 유럽 국가 정부 중 5번째로 큰 공적 개발원조 지원자로서 공식적으로 5.2조 미화달러(35.5조 스웨덴 크로나)를 투자했다. GNI 대비 ODA의 비율은 0.99%로 2011년의 1.02%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UN의 목표치인 0.7%를 넘어선다. 스웨덴은 1975년 이래 늘 UN의 목표치 이상을 달성해왔고, 2006년 이후로 GNI 대비 0.9%가 넘는 지원 금액을 할당했다(OECD, <http://www.oecd-berlin.de/charts/>).

[그림 X-2] ODA/GNI 나라별 2012



출처: OECD(2012)

올해 스웨덴 정부의 ODA 예산은 GNI 대비 1%에 달하는 총 38,2조 크로나이고, 국제개발협력청에는 18,3조 크로나가 할당되었다. 스웨덴은 OECD DAC의 모든 구성원 중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Donor Tracker, <http://donortracker.org/donor-profiles/sweden>).

4. SIDA의 목표와 정책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은 주로 5개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1) 민주주의와 평등과 인권

동등한 대우와 자신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이고, 빈곤 퇴치에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런 권리들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평등과 인권은 스웨덴의 전반적인 개발 협력

목표 중에서 스웨덴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문이다.

2) 경제 개발

경제 성장은 세계의 빈곤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SIDA는 한 국가나 사회의 자체 성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가난에 허덕이는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SIDA는 지원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좋은 투자 환경 만들기, 기후 토론에서의 협상에 도움을 주는 등 여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정된 조건의 금융시장을 형성해서 좋은 거래 기회를 만들고, 중앙은행과 증권 거래소 같은 기관들도 지원하고 있다.

3) 지식, 보건 및 사회 개발

SIDA는 빈곤 감소가 교육과 보건 투자에 확실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여긴다. 지식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건강은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SIDA는 교육과 보건 부문에도 지원하고 있다.

4) 지속 가능한 개발

세계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환경과 기후 변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대부분이 숲과 육지와 바다가 제공해주는 자원들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다. SIDA는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여긴다.

5) 평화와 안보

스웨덴이 지원해주는 국가들 중 대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최근에 종료된 무력 충돌과 전쟁 때문에 개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스웨덴은 분쟁 지역들의 안정성과 민주주의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노력으로 기여하고 있다(SIDA, <http://www.sida.se/English/About-us/>).

5. ODA 정책 예시: “노동자의 권리가 원동력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Khayelitsha에 위치한 LAMEC(Labour Community Advice Media and Education Centre)은 노동자를 위한 자문 사무소이다. 이곳에서 고용주 또는 다른 권위적인 단체와의 갈등이 있는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AMEC은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고 정보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중 베로니카 멘테(Veronica Mente)는 불의와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목격하고, 피부색에 상관없이 차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LAMEC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LAMEC은 노동자의 편에 서서 법률 사무소 같은 기능을 한다.” 고 말한다. 그녀의 꿈은 학대 받는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SIDA, <http://www.sida.se/English/>).

스웨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원은 1960년에 인도주의적 개발 원조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인종차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쌓도록 한다. 스웨덴은 노동조합의 역할이 민주주의 강화에 중요하다고 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NGO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SIDA, <http://www.sida.se>).

6. 대외원조 전망

스웨덴의 공적 개발 원조는 지난 10년간 GNI의 1%를 맴도는 확고하고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이 추세는 ODA의 목표액이 연간 예산에 준하고, UN의 ODA 가이드라인이 GNI의 1%로 정해진 사실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Donor Tracker, <http://donortracker.org/donor-profiles/sweden>).

[그림 X-3] 스웨덴의 ODA 지원 국가들



출처: Open Aid(2013)

2013년 스웨덴은 총 134개의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SIDA가 사업 개발의 추진뿐만 아니라 지원의 효율성과 결과에 특히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성과 중심의 자금 조달, 지원의 효율성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화한 외교부의 올해 정책 성명에도 반영된다. 양자간 개발 협력에서는 계속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장 큰 분야로 보고 지원할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민주주의화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특별 의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특히 경제 성장, 직업 창출과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농업 분야를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2012년에는 1억 미화달러 (6억5천만 크로나)를 빈곤 감소를 위한 민간 부문 개발과 기업가 정신 지원에 개발 원조 예산으로 할당했다. 이 중 3천9백만 달러 (2억5천만 크로나)를 산업 개발과 정보 및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기술과 능력개발에 할당했다.

인도적 원조에는 7억8천5백만 달러 (5조 크로나)의 예산이 할당되었다. 외교부와 SIDA 가 3억 달러(2조 크로나)를 유니세프(UNICEF), 적십자와 같은 저명한 인도주의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시장의 기능성 향상과 여성들의 조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는 스웨덴 개발

협력의 미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과 중심의 문서를 포괄적으로 작업하고 있다(Donor Tracker, <http://donortracker.org/donor-profiles/sweden>).

참고문헌

<http://donortracker.org/donor-profiles/sweden>

<http://www.oecd.org>

<http://www.openaid.se>

<http://www.sida.se>